

한빛원전 2호기 승인받지 않은 재질로 용접했다는데...

안전성 조사 한 달 늦춰 주민 반발

조사위원 개인 일정때문 연기

부실정비 의혹이 제기된 한빛원전 2호기에 대한 안전성 조사가 지연되고 있어 영광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한빛원전 민간환경·안전감시위원회는 2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빛 2호기 안전성 확인을 위한 특별조사를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감시위원회는 “특별조사위원회의 지난 16일 첫 회의를 갖고 각 위원들

의 개인 일정을 이유로 2차 회의를 10월 15일로 정해 한 달이나 지난 시점에 조사를 실시하러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첫 회의 당시 문제가 되고 있는 한빛원전 2호기의 용접부위가 압력경계 지점이 아니어서 안전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가동을 즉각 중단하지 않기로 했다. 또 보수업체인 두산중공업과 의혹 제보자의 주장이 달라 추가로 경과보고를 받은 후 조사활동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특별조사위원회 일부 위원은 지역 주민들의 정서를 감안해 가동만이라도 일단 중단하고 조사작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감시위원회는 “주민들은 원전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해지고 있으며 특별조사위원회의 무성의한 태도에 불신감이 커지고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신속하게 특별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빛원전 2호기 증기발생기 수실 내부의 결함을 보수했던 두산중공업은 당초 사용 재질이었던 스테인레스 스틸 대신 승인받지 않은 인코넬600을 사용해 용접한 것으로 드러나 부실정비 논란이 일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같은 문제가 내부 고발로 드러나자 일주일만에 가동 중단을 결정하고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했으나 가동 중단은 물론 조사 작업도 지연되고 있다.

/영광=조익성기자 ischo@



수세미 익어가는 청산도의 가을

24일 완도군 청산도 슬로길 1코스 도락리 안길에 돌담과 어우러진 수세미 덩굴이 가을 정취를 더하고 있다. <완도군 제공>

목포시 ‘임파워먼트 동아리’ 공공복지 정책비전 대상

사회복지 공무원들 모임

‘복지, 내 손 안에 있소이다’ 정책 제안

목포시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모임인 ‘임파워먼트 동아리(팀장 이영)’가 제8회 공공복지 정책비전대회에서 영예의 대상(보건복지부상)을 수상했다.

공공복지정책 비전대회는 매년 전국의 사회복지 공무원을 대상으로 복지제도 개선안 등을 공모해 상을 주고 있으며,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가 주최하고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후원하고 있다.

10명으로 구성된 ‘임파워먼트(사진)’는 복지공공포털 사이트인 ‘복지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복지, 내 손 안에 있소이다’라는 주제로 정책을 제안했다.

복지공공포털사이트인 ‘복지로’는 중앙정부 16개부처 292개 사업과 지자체 5015개 사업을 수록하고 있는데 대상사업의 종류가 너무 많아 한 눈에 보기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따라 시청 ‘임파워먼트 동아리팀’은 일선에서 일하는 사회복지공무원들이 ‘복지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구성한 것이다. 복잡하고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쉽게 풀어쓰고, 폭포수 모형인 복지갈래기 모형 대신 사회복지 특성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마인드맵을 활용한 ‘복지레이블’로 분류했다.

또 현행 복지서비스 찾기 분류표도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등 대상자를 한글과 엑셀파일로 분류해 담당자들이 쉽게 신속 정확하게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물론 일반 주민들도 어려움 없이 이해가 가능하도록 재분류했다.

시상식은 오는 10월24일 열린다.

/목포=임영춘기자 lyc@kwangju.co.kr

신안군 천사섬 신안 로고

특허청에 상표 출원 등록



신안군은 24일 “천사섬 신안의 로고(CI·사진)를 특허청에 상표 출원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근거조례를 개정해 신안군은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신청한 바 있다. 전국 227개 지방자치단체 중 숫자를 형상화해 심벌마크를 만든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새 신안군 로고는 1004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지리적 특성을 표현해 풍요로운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발전적이고 진취적인 의지를 담고 있다. 또 군민의 염원을 담은 연륙·연도교 사업과 청정 해양생태자원을 심플하게 단색으로 표현했다.

/신안=이상성기자 sslee@

‘명량 11품 마당놀이’ 보러 오세요

27일부터 명량대첩축제

해남·진도 주민들 참여

오는 27일부터 해남우수영 물목에서 열리는 “2013 명량대첩 축제”에서 해남과 진도 지역민이 선보일 예정인 ‘명량 11품 마당놀이’가 이색 볼거리로 주목받고 있다.

해남 7개 읍·면과 진도 4개 읍·면 주민들이 참여해 마련한 ‘명량 11품 마당놀이’는 지역에서 내려

오는 민담과 전설, 굿, 민속놀이 등이 마당놀이로 각색된 것으로, 축제기간인 오는 28일과 29일 해남 우수영 놀이마당과 진도 녹진 놀이마당에서 초연된다.

해남군에서는 해남읍의 ‘도깨비 나무 이야기’를 비롯해 삼산면의 ‘삼산야화’ 등 7개 공연을 마련했으며, 주민들은 이날 초부터 본격적인 연습에 들어갔다.

8월 한여름부터 매주 2회씩 모인 연습을 하고 있다는 문내면 김점식(여·58)씨는 “주민들이 만들

어가는 축제마당에 참여해 기본”이라며 “명량대첩비 야화를 통해 명량대첩비를 지켜낸 선조들의 나라사랑 마음을 축제를 찾는 관람객들에게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명량 11품 마당놀이 공연 중 해남공연은 해남읍 ‘도깨비나무이야기’, 삼산면 ‘삼산야화’, 송지면 ‘품바공연’, 해남 북일면 ‘장군 투구봉’, 계곡면 ‘특산물 홍보마당극’, 산이면 ‘해남사랑 아리랑난타’, 문내면 ‘명량대첩비 야화’ 등이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전북

백두대간 남원에 35ha 규모 수목원 조성

남원시·LF네트웍스 투자협약 ... 이백면 양가리 일대

테마수목원·체험농장·전통정원 등 다양한 볼거리

백두대간 자락에 위치한 남원시에 국내 최고의 수목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남원시는 24일 “국내 1위의 조경업

체인 고려조경을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는 (주)LF네트웍스와 남원시 이백면 양가리 일대 35ha에 수목원을 조성하기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개발예정 부지는 고려조경이 지난 2006년부터 묘포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곳으로, 다양한 종과 소나무 군락이 주는 피톤치드로 숲 치유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주)LF네트웍스 김민호 대표는 “남원수목원조성사업은 테마수목원

과 체험농장, 전통정원 등 다양한 볼거리를 갖춘 국내 최고의 수목원을 조성을 위해 현재 용역에 착수한 상태로 2014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수목원은 후대에 물려줄 장기 프로젝트인 만큼 1단계 수목원 조성이 완료되면 단계적으로 숲속에

단신

오늘 도내 207개 중학교 3학년 학력평가

학업성취 수준 진단과 고입 진학자료 활용을 위한 전북도내 중학생 학력평가가 25일 치러진다.

학력평가는 전북도교육청 주관으로 (주)LF네트웍스의 수목원조성이 완료되면 현재 추진 중인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과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과 연계해 관광객 유치에 나선 방침이다.

학, 기술·가정, 음악, 미술, 영어 등 모두 9개 과목에서 180문항을 출제한다.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고, 학업성취 수준을 비교하는 석차도 산출하지 않는다. 다만 점수 구간 누계표를 제공해 고입 진학진도 자료로 활용하고 학습 개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전주 등 6개 시 30일 ‘차 없는 날’ 행사 다채

전주시와 익산시 등 전북 도내 6개 지역에서 오는 30일 ‘차 없는 날’의 의미를 고취하는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전북도는 24일 “추석 연휴 때문에 미뤄진 ‘세계 차 없는 날(22일)’ 행사를 오는 30일 실시한다”고 말했다.

당일 전주시 등 6개 시 지역에서는 각각 100~660m를 차 없는 거리로

지정, 운영하는 대신 기차변환 홍보 버스 운영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벌인다. 전주 오거리 광장과 영화의 거리 구간에서 열리는 전주시의 행사에서는 자전거 체험 및 수리, 자전거 동호인 퍼레이드, 공공기관 주차장 차량통제 등의 행사가 진행된다.

고창군 아산면에 대규모 리조트 짓는다

고창군·스리알비엔비 850억원 투자협약

관광호텔·콘도·컨벤션센터·승마장·가족농장 등 갖춰

고창군과 스리알비엔비(3R B&B) 주식회사는 24일 고창 아산면에 대규모 리조트를 짓기로 협약했다.

850억원을 들여 건립하는 이 리조

공연장과 승마장, 가족농장과 같은 부대시설도 포함돼 있다.

부지 인근에는 람사습지로 지정된 운곡습지가 있는 등 자연경관이 뛰어나고 골프장과 같은 레저시설도 갖춰 리조트 건립의 적지로 손꼽히고 있다.

군은 리조트가 건립되면 120여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관광

에 착수한 상태며 이르면 내년에 공사에 들어가 오는 2018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이 회사는 택지를 개발해 비즈니스와 테마파크 공간으로 개발하는 전문업체로 알려져 있다.

군은 리조트가 건립되면 120여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관광

숙박체험 등을 위한 숙박시설, 갤러리, 교육시설 등 다양한 편의시설 등 추가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완주 남원시장은 이날 (주)LF네트웍스의 수목원 조성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약속했다. 시는 (주)LF네트웍스의 수목원조성이 완료되면 현재 추진 중인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과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과 연계해 관광객 유치에 나선 방침이다.

/남원=백성기자 bs8787@

고창군 벼 품종비교 벼농사 종합평가회

고창군은 24일 고창읍 월암리 월암마을에서 농가 및 관계 공무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벼 품종비교 벼농사 종합평가회를 개최했다.

군 관계자는 이날 “고품질 쌀 생산에 전력을 기울여 친환경 기능성 특수미 재배단지 확대와 부가가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품질 벼 및 기능성 품종 48개가 비교 전시돼 농업인의 많은 관심과 호응을 끌어들였다.

군 관계자는 이날 “고품질 쌀 생산에 전력을 기울여 친환경 기능성 특수미 재배단지 확대와 부가가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순창군 10월 6일까지 모범음식점 신청 접수

순창군은 24일 “식품접객업소 음식문화 개선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2주동안 모범음식점을 신청 접수한다”고 밝혔다.

모범음식점 신청대상은 영업신고 후 6개월 이상 영업중인 관내 일반음식점이 해당되며, 신청 음식점 중 5%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한다. 건물구조와 환경, 주방, 서비스, 제공반찬과 가격표시, 좋은식단 실천 등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현지 조사를 거쳐 다음달 안에 선정한다.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되면 인증마크(표지판)를 부착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전주시, 단독주택 2000여 세대에 도시가스 공급

풍납초교 서측·도심 외곽

연말까지 총 40억원 들여

전주시는 24일 “유가 인상으로 서민의 난방비 부담이 커짐에 따라 2000여 곳의 단독주택에 도시가스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심의를 통해 도로 굴착 등이 가능한 60개 지역 2000여 세대를 선정, 총 40억원을 들여 연말까지 도시가스를 공급하기로 했다.

사업지역은 그동안 도상에 있으면서도 주변 여건상 도시가스 공급이



유네스코에 전주 음식·전통문화 알려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전주 대표단이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진행된 ‘2013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연례회의’에 참석해 전세계 19개국 34개 창의도시 관계자 320여명에게 전주의 음식과 전통문화를 알렸다.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전주 대표단이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진행된 ‘2013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연례회의’에 참석해 전세계 19개국 34개 창의도시 관계자 320여명에게 전주의 음식과 전통문화를 알렸다.

/전주=이영준기자 iyo@